백화점 봄세일 찬바람 불었다

윤달 영향 혼수 매출 줄고 추위에 신상품 부진

광주신세계 3.7%⬇…현대百 1.5% 소폭 증가

지역 백화점들이 봄 정기세일에 고가의 경품까지 내걸며 소비자들의 지갑 열기에 나섰지만 매출 실적은 저조했다.

세일 초반 이상 저온으로 봄 신상품 판매가 저조했던 데다 윤달 영향으로 혼수 상품 매출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봄 정기세일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봄 특수를 누려야 할 여성의류(4.5%), 영캐주얼(7.8%) 부문의 매출 상승세가 저조했다. 4월 까지 이어진 꽃샘추위로 봄 신상품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아웃도어(46.0%)와 스포츠(28%) 상품 매출 증가율이 두드러졌고, 세일 마지막 주말인 22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로 이마트 광주점이 휴점을 하면서 식품(축산 14.9%, 농산 7.0%)과 생활잡화(12.0%)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여 정기세일 매출 하락폭이 줄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첼린지 세일 기간 전년대비 매출 실적이 약 7%로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윤달 영향 등으로 고가의 예복이나 혼수 구매가 줄면서 관련 상품군 매출이 저조했다.

전기·전자상품의 매출 증가율은 7.5%에 그쳤고, 정장 등 남성복(-4.5%) 매출이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아웃도어(50.8%)와 레저·스포츠(38.8%) 상품군이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백화점 매출 하락을 방어했다.

현대백화점도 광주점을 포함한 기존점포는 매출이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반기에 원피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는 모피(42.0%)를 제외한 여성의류와 영패션은 3~5% 수준으로 매출 증가율이 저조했다.

지역 백화점들은 봄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여름 상품을 앞당겨 내놓고 여름 장사를 서두르고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여성복 매장을 기준으로 여름상품이 70~80% 정도 채워졌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올 봄 세일은 초반 이상저온과 윤달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스포츠, 아웃도어 상품군의 선전해 매출 개선의 여지를 보여줬다"며 "이상기온 등 급변하는 날씨때문에 최근에는 간절기 상품은 줄이는 대신 여름과 겨울 상품을 전략적으로 늘려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못믿을 중고차' 피해 신고 급증

사고 이력 속이고 주행거리 조작 불만 폭주

중고자동차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1월 이후 중고차 관련 피해 신고가 1352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256건, 2010년 459건, 2011년 510건, 올해 3월 말 현재 127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침수 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축소됐다는 불만이 82.0%(1109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성능 불량이 47.6%(643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 20.3%(274건), 주행거리 차이 11.9%(161건) 등 순이었다. 제세공과금 미정산(7.6%), 계약금 환급 지연(3.6%), 침수차량 미고지 2.3%(31건) 사례도 접수됐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작성하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이 차령이나 차종 구분없이 획일적이고 성능 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된 탓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들이 차량 상태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차이를 발견하고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차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회피한 탓에 수리, 교환, 환급 등 처리율은 38.8%(525건)에 그쳤다.

분쟁 발생 시점은 중고차 품질보증기간인 구매 후 1개월 이내가 854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구매 후 1~2개월 이내 206건(15.2%), 2~3개월 이내 75건(5.5%) 순이었다.

차령은 출고 후 10년 이상 24.3%(329건), 7~10년 이내 23.2%(313건), 3~5년 이내 246건(18.2%) 순이었다. 출고 후 5년 이상 차량이 전체의 63.8%(863건)를 차지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구매 때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별계약사항은 서면으로 명기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기재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같은지 꼼꼼히 확인하고서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여수박람회장 견학 송기진 광주은행장과 우수직원 100여명은 24일 여수세계박람회장 견학 등 'CEO와 함께 하는 꽃 향기 봄소풍 행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화합과 소통으로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했다. 〈광주은행 제공〉

신보, 여수엑스포 성공기원 70억 지원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가 여수엑스포 숙박시설에 필요한 시설자금 보증지원과 입장권 단체구매 등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24일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에 따르면 여수지역 여관숙박업체는 기존에 보증취급유의업종에 해당돼 신용보증지원이 어려웠으나 2012여수세계엑스포 행사와 관련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기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70억원의 신용보증지원을 했다.

4월에는 호남지역 영업전략회의를 여수에서 내달 20일 개최해 국제 행사에 대한 관심 제고와 동참 분위기 확산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를 방문 입장권 211매를 단체 구매하고 직원과 가족들의 엑스포 행사 참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미기자 emlee@

작년 보험사기 피해 4237억원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4237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1인당 추가 부담 보험료도 증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7만2333명이다. 전년보다 3120명 늘어나 처음으로 7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허위로 받으려 했던 보험금은 4237억원에 달한다. 전년보다 13.1%(489억원) 증가했다. 금액과 인원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허위·과다입원 등 사기 범죄가 심했다. 허위사고로 적발된 금액은 2988억원이다. 불필요한 입원으로 지출한 비용은 2010년 226억원으로 130.7% 폭등했다. 지난해에도 42.6% 올라 323억원을 기록했다.

병원이나 보험설계사가 공모한 보험사기는 173억원이다. 2009년 82억원, 2010년 125억원에 이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10대 청소년들의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 586명이 적발된 것이 지난해에는 952명으로 62.5% 뛰었다. 비중은 적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험사기 증가로 말미암은 누수금액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3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의 12.4%에 해당한다.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추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연합뉴스

기업銀 中企대출 100조 돌파

IBK기업은행(행장 조준희)의 중소기업 대출(중기대출)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기업은행은 "외화를 포함한 중기대출 잔액이 100조3000억원(23일 기준)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넘은 것은 국내 은행 중 처음이다. 기업은행의 중기대출은 1981년 1조원을 처음으로 넘었다. 1993년 10조원, 2006년 50조원을 초과한 데 이어 6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늘어난 은행권 전체의 중기대출 중 91%가 기업은행이었다"며 "'비 올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